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리치몬드 은행 총 “연준, 금리 인하 시기에 인내 필요”
- WSJ: 미 신규 실업청구건 3주만에 처음 하락
- CNN Business: 경제 성장 높지만 실업률 높은 네바다주

[미국 금융]

- WSJ: 투자자들의 연준에 대한 판단은 틀릴 경우 많아

[뉴욕시]

- Bloomberg: 맨해튼 아파트 임대건수 급증

[에너지]

- Bloomberg: 유가 상승했지만, 변동성 줄고 있다
- WSJ: 미 원유 재고는 늘었지만, 휘발유와 증류유 재고는 감소

[물류]

- WSJ: 물류 업체들, “운송업계 회복 조짐 보인다”

[자동차]

- WSJ: 닛산, 3분기 순수익 감소하고, 매출 전망 낮추다
- WSJ: 중국 자동차 매출, 중국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둔화 가능성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Bloomberg: 샤넬, 맨해튼에 주얼리 및 시계 전용 매장 오픈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Fed Has Time to Be Patient on Cutting Interest Rates, Barkin Says

리치몬드 은행 총재 “연준, 금리 인하 시기에 인내 필요”

- 리치몬드 연방은행장인 Thomas Barkin는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는데 인내하면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. 그는 강한 노동 시장과 계속적인 디스플레이션을 지칭하면서 이같이 말했다.
- 그는 “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,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게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”고 말했다.
- 그는 현재 물가 상승 둔화에 상품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US Initial Jobless Claims Drop for the First Time in Three Weeks 미 신규 실업청구건 3주만에 처음 하락

- 신규 실업 청구건수가 3주만에 처음으로 하락 고용주들이 여전히 근로자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2월 3일 끝나는 주의 청구 건수가 9천건 줄어든 21만8천건으로 나타났다고 연방노동부는 목요일 밝혔다.
- 계속 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건수는 1백87만 건으로 나타났다.
- 지난 수개월간 고용시장이 좋았으나 향후 수개월간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수 있다는 점이다.

WSJ 기사

CNN Business: Strong economic growth but high unemployment: A look at Nevada's economy 경제 성장 높지만 실업률 높은 네바다주

- 네바다주가 이번주 공화당이 주관하는 대선 코커스와 예비선거, 이번 주말 슈퍼볼LVIII이 개최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.
- 팬데믹때 큰 타격을 받는 이른바 '유형 산업과 기술 부흥의 주' 라고 할 수 있는 네바다주는 회복 성장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5.4%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주 경제 개발국 부국장 Bob Potts는 밝혔다.

CNN Business 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Investors Are Almost Always Wrong About the Fed 투자자들의 연준에 대한 판단은 틀릴 경우 많아

- 투자자들은 올해 하반기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고 있다.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그동안 맞지 않았다는 점이다.
- 지난 수년간을 살펴보면 월가는 양쪽 방향 모두 판단이 틀렸었다. 우선 당초에 연준의 금리가 5%에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.
- 이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곧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 베팅을 늘리고 있지만 경제 지표가 좋을 때마다 그런 날을 멀어지고 있다.

WSJ 기사

[뉴욕시]**Bloomberg: Manhattan Apartment Leases Surge, Keeping Rents From Sliding****맨해튼 아파트 임대건수 급증**

- 1월 임대 건수가 급증하고 임대료도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면서 아파트 찾기가 까다로워 지고 있다.
-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규 임대 중간 가격이 월 4천1백50달러. 전년도 1월 보다 1.3%, 지난 12월보다 1백불 상승했다.
- 또한 지난달 총 임대 계약이 3천9백22건수 체결되어 적년 동월 대비 14% 증가했으며 3년 연속 증가세다.

Bloomberg 기사

[에너지]**Bloomberg: Oil Climbs But Remains Rangebound as Volatility Tumbles****유가 상승했지만, 변동성 줄고 있다**

-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올랐지만, 유가가 점차 박스권에 갇히면서 변동성은 줄고 있다.
- 오늘 목요일 미 원유 선물가는 1.5% 상승해 배럴 당 75불을 기록했다.
- 이번 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재개될 위험이 커지는 등 유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, 금리에 대한 기대치 변화와 중국 경제의 부진한 전망과 맞물리면서 유가 변동성이 줄고 있는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WSJ: U.S. Oil Inventories Rose, Products Fell in Week Ended Feb. 2**미 원유 재고는 늘었지만, 휘발유와 증류유 재고는 감소**

- 수요일에 공개된 EIA 데이터에 따르면, 미국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한 반면, 정유 공장의 활동이 5주 연속 감소하면서 휘발유와 증류유 재고는 감소했다.
- 전략 비축유를 제외한 상업용 원유 재고량은 2월2일 기준 5백50만 배럴 증가해 4억2천7백40만 배럴을 기록했다. 이는 5년 평균 대비 4% 낮은 수준이다.

- EIA는 몇 달 안으로 미 원유 생산량이 감소해 2025년까지 하루 생산량이 1천3백30만 배럴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.

WSJ 기사

[물류]**WSJ: Logistics Operators See a Shipping-Market Rebound Taking Shape
물류 업체들, “운송업계 회복 조짐 보인다”**

- 올해를 시작하면서, 화물 운송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, 이는 물류 업계가 지난 2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.
- 데이터 분석 기관인 Descartes Datamyne에 따르면, 컨테이너 수입이 7년 만에 전월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.
- 운송비는 2022년 6월 이후 처음 한 달 동안 상승했으며,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대형 트럭 운송업체 ABF Freight의 모기업인 ArcBest는 4분기 수익성이 개선된 후 1월에 계약에 기반한 핵심 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8% 증가했다고 밝혔다.

WSJ 기사

[자동차]**WSJ: Nissan Motor Reports Drop in Third-Quarter Profit, Cuts Sales Forecast****닛산, 3분기 순수익 감소하고, 매출 전망 낮추다**

- 닛산이 3분기 순수익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, 주요 모든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, 연간 판매량 전망치를 낮췄다.
- 이 기업은 오늘 목요일, 12월까지 3개월 동안, 작년 초 대비 순수익이 42% 감소해 1억9천 6백7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.
- 공급망 위기와 경쟁 심화를 이유로, 올해 1분기 글로벌 판매량 전망치를 370만 대에서 355만대로 낮췄다.

WSJ 기사

WSJ: China Car Sales Make Strong Start to Year But May Slow on Weak Sentiment**중국 자동차 매출, 중국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둔화 가능성**

- 중국산 자동차 매출이 연초부터 호조를 보였지만, 설 동안 소비 심리가 침체되면서 이러한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.
- CPCA는 일반적으로 설 연휴는 자동차 판매에 좋은 기간이지만,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.
- 최근 중국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해 소비자 심리가 위축한 것이다.
- CPCA는 2월 자동차 판매량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Bloomberg: Chanel Opens Its First US Store Dedicated to Jewelry and Watches**샤넬, 맨해튼에 주얼리 및 시계 전용 매장 오픈**

- 샤넬이 맨해튼 730 5에비뉴에 있는 크라운 빌딩에 오늘 8일 개장한다.
- 이번 샤넬 매장은 샤넬 최초 미국 내 고급 주얼리 및 시계 전문 매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내부 인테리어는 샤넬의 역사를 담기 위한 노력이 들어갔으며, 검은색과 금색이 주를 이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.

CNN Buisness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**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유럽 확산..."금융위기 후 최대 위기"****도이체 PBB, 채권·주가 급락에 예정 없던 성명...총당금 늘려
일본·스위스 은행들도 타격..."바닥 어디인지 정확히 몰라"**

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일본에 이어 유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.

블룸버그통신과 CNN 방송은 7일(현지시간) 이미 뉴욕과 일본 은행들에 타격을 준 이 문제가 이번 주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.

가장 최근의 피해자는 독일의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대출 기관인 도이체 판트브리프뱅크(이하 도이체 PBB)로, 최근 관련 문제로 채권값이 폭락했다. 주가도 이날 거의 6%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25% 떨어졌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